데스크 시각

광주 의료계 덮친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채 희 종
정치담당 편집국장

"일부 비양심적인 안과 병의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실비 청구 금액의 일부를 소개자나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지불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안과 병의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배너 광고판과 포스터 내용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안과 로비에는 라식·라섹·안성형 등 안과 진료 및 수술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대다수 안과 병의원에는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유발 금지 행위' '백내장 수술 알고 합시다' '보험 사기 및 환자 유인 행위'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다. 모두 대한안과의사회가 제작·배포한 것이다.

보험금 때문에 백내장 없어도 수술

지역 안과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광주 지역에 개원 주체를 알 수 없는 안과 몇 곳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가 주축을 이루는 개원가의 특성상 새로운 병의원이 생길 때는 의료진 면면은 물론 지분 구조 등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이들 안과들은 개원 당시 경영 구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광주 지역 안과 개원의들은 수년 전 부산이나 다른 대도시에 수도권 자본의 안과 병의원들이 들어서 2~3년간 집중적으로 백내장 수술만을 한 후에 병원을 접은 사례가 있어 광주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교롭게도 상당수 광주 지역 안과 병의원들의 의사나 상담사들에게 상당수 이상한(?) 환자들이 찾아온 시점이 지난해 연말부터라고 한다. 특정 몇몇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그곳에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가 보험 대상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묻거나 심지어 보험 지급 대상의 백내장 상태임을 적시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마저 했다는 것이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일부 몇몇 안과들이 아예 백내장이 없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미한 환자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보험 처리가 된다며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데 문제는 이같이 미심쩍은 수술이 급증하자 보험사의 감독이 강화됐고, 이로 인해 공짜 수술을 기대했던 환자는 보험비를 받지 못해 병원에 항의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흔한 백내장 수술 사기 형태는 수술비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환자들을 유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안과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해야 하는 탓에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나 전문 브로커 고용이 필수이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백내장이 없는 눈까지 손대면서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력 교정을 겸한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의 안과들이 800만 원대의 비용을 받고 있지만 문제의 몇몇 안과들은 50% 이상 비싼 1200~13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술 환자를 유인해온 보험설계사나 브로커, 직원들에게 100~200만 원을, 심지어 수술받은 환자에게 100~150만 원가량을 되돌려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공짜로 하고 돈까지 버는 셈이니, 보험 사기임을 알아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설계사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 유인

문제는 이처럼 빈발하는 보험 사기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더욱이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은 환자 눈 건강에 해롭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보다 못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최근 최대 3000만 원의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다. 포상금 3000만 원은 탈옥수 신창원이나 연쇄살인마 유영철 정도의 흉악범들에 해당하는 현상수배금 규모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요양병원 보험 사기로 오명을 쓰고 있는 광주가 일부 극소수 비양심적인 안과들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안과 개원의까지 매도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보험 및 금융 당국은 신고나 제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일반 안과보다 절반 이상 수술비를 더 받는 안과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과도한 검사비와 재료비 등 과잉 진료는 물론 '생내장 수술'에 대한 진술 확보, 보험설계사와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안과 보험 사기는 고도의 지능 범죄가 아니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근절이 가능하다.

은펜칼럼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

강 대 석
시인

지난 9일 오후 6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걸어 나와 마지막 퇴근을 했다. 그의 말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퇴근이었다. 청와대 앞에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근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아쉬운 듯 "문재인"을 연호하며 뜨거운 환송을 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레임덕을 겪지 않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답게 밝고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친인척 비리 등으로 침울한 분위기에서 퇴임한 것과 비교하면 잡음 없이 마친 것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임엔 틀림없었다.

그러나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지켜보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 않았다. 그것은 추운 겨울 촛불로 세운 정부가 단 5년으로 막을 내렸다는 아쉬움과 다시 정치적 섬이 된 호남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일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극에 달한 2018년 1월 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이끌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르고 북미 대화 중재 등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은 무엇보다도 잘한 일이었다. 야권에선 쇼라고 비판도 많았지만 우크라니아가 서방 편향 외교로 러시아와 갈등 끝에 전쟁을 겪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와 대북 정책은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또한 코로나19의 모범적 극복과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각 분야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선진국 진입을 넘어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도 큰 업적이었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일자리, 인사 문제 등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가장 뼈아픈 부문이었다.

흔히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부동산이 정권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높은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어버린 오만한 인사가 또 한 축이었다. 임기 5년 동안 야당의 동의 없이 무려 34명에 이르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오만하고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노무현 정부 세 명, 이명박 정부 열일곱 명, 박근혜 정부 열 명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났다.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국민 통합을 고려하여 정파 간 탕평 인사를 했다면 그렇게 반대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의 분수령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부부 장관 임명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무려 13단계(홍준표 의원 주장)나 건너뛴 유례없는 인사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특유의 인사로 둘 다 언론과 야당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되었다. 이 인사가 결과적으로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만든 불씨였고 촛불 정부가 5년 만에 막을 내린 도화선이었으니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두고두고 회한이 클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사 정책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자에겐 직책을 주고, 공이 있는 자에겐 상을 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능력과 공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결과가 인사 실패의 주원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비서관 인선을 두고 '서오남'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대와 오십대 남성 중심의 인사란 것이다. 지역과 세대를 떠나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설명이지만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벗어난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후보 시절 주장대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를 했으면 한다. 그래야 5년 후 마지막 퇴근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박수를 받을 것 아닌가.

기 고

시민이 만들어 가는 '국제 스포츠도시 광주'

김 준 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지난해 12월 5일 광주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2 양궁월드컵대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스위스 로잔으로부터 날아왔다. 특히 2005년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시를 제치고 세계양궁연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큰 기쁨과 함께 자랑스러운 광주시민으로서 깊은 자긍심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

광주는 최근 20년간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도시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고, 메르스 팬데믹 속에서 치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성공적인 대회로 호평을 받았으며, 코로나 시대 마지막 국제 경기였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완벽하게 치러냄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스포츠 도시 광주를 각인시켜 왔다. 이는 강한 도전 정신과 시대 발전을 선도해 온 광주시민들의 특별한 DNA가 공정과 배려, 열정과 도전의 스포츠 정신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가 국제 무대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위해 양궁월드컵대회라는 활시위를 힘껏 당기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첫 국제 대회로 17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양궁월드컵대회는 하계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양궁 종목 3대 빅 이벤트 중 하나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유치를 희망했으나 상하이에서만 개최되었으며, 2022년 양궁월드컵대회 2차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광주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양궁월드컵대회를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다.

광주는 2015 하계U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메가 국제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양궁월드컵대회를 치러낼 것이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 K-스포츠과학, K-방역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대회,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광주의 정을 전달하는 대회를 목표로 수송·숙박·경기 시설 등 촘촘히 대회 준비에 매진해 왔다.

이제 국제 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넘어 광주가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 스포츠 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레거시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을 뿐더러 지역 균형발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고 지역과 국가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시는 2015 하계U대회 이후 유형적 자산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외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광주를 찾게 하고 다양한 종목의 국내·국제 대회 유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수영의 메카로 도약하고 국제 대회를 경험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발전의 동력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이어 대구시와 함께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시안 게임 유치는 양 도시의 국제 대회 경험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르고자 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민 통합과 아시아 평화라는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를 바로 돌린 정의로운 의향의 도시 광주 정신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고 가슴마저 뜨거워지는 오월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양궁월드컵대회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방침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 경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전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회 유치에서부터 준비, 개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한데 모아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경기장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참가 선수들을 힘껏 응원하고 대회를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說

42주년 5·18 기념식 '국민 대통합' 시발점으로

오늘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 대통령실 비서진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참석하는 등 여권이 총출동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여야 전체가 한자리에서 5·18 정신을 기리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역에서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이 열차엔 출장·질병 등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사실상 의원 전원이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다. 윤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해 함께 부르는 것이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합창'과 '제창'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5·18묘지를 찾아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념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 합의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민주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그제 국회에서 5·18 공법단체와 기념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역시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법과 예산은 물론 5·18 정신이 국민 통합으로 승화하는 데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겨냥한 보여 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5·18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5·18 기념식이 국민 대통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 시도지사 후보 협력 다짐 상생 훈풍 부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가 광주·전남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두 후보는 그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열고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두 후보는 후보 직속으로 '상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활동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이후 이를 공식 기구로 만들어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가 협력을 다짐한 주요 상생 안건은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 유치를 비롯해 광역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물류·인적자원·관광 등 교류 협력 확대, 경제·행정·생활권 통합 등이다.

두 후보는 또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군 공항 이전을 비롯해 교육환경 개선,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 등에도 협력해 경제공동체를 넘어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4년 동안 광주·전남 상생 협력은 사실상 헛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부진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공동 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나주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광주시와 별개로 추진하려는 전남도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국내외 지자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 통합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한 뿌리인 광주·전남이 서로를 외면하면 뒤쳐지기 십상이다. 두 후보는 당선되면 과거처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상생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無等鼓

모란과 작약

모란과 작약은 형제나 자매와 같은 꽃이다. 모란은 목본식물, 작약은 초본식물이란 점이 다를 뿐 똑같이 '작약과'에 속한다.

둘 다 '꽃중의 꽃'으로 유명한데 동양에선 모란이 더 익숙하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선덕여왕은 공주 시절 당 태종이 보내온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실제 씨앗을 심어 보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선덕여왕의 영민함에 탄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란에도 향기가 있다. 옛 문인들은 매화의 암향(暗香), 난초의 유향(幽香)에 대해 모란을 이향(異香)이라고 하여 색다른 향기로 구별했다. 꽃들의 전쟁이라고 할 만한 '화투'(花鬪)에서 목단(모란)은 6월의 꽃을 상징하는데 열 끗짜리에 나비가 등장한다.

선덕여왕이 받은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었던 이유는 당나라 화법 때문이다.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에 80세 노인을 상징하는 나비가 들어갈 경우 영원한 부귀를 누리는 것을 제한한다고 생각해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영랑 김윤식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을 봄"을 이라고 모란의 짧은 개화를 아쉬워했다.

작약은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치유의 신 '파이온'(Paeon)에서 유래했다. 신들의 의사였던 파이온이 작약 뿌리로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의 상처를 치료해 주자 평소 제자 파이온을 질투했던 아스클레피오스가 분노해 그를 죽이려했지만 제우스가 파이온을 살려 작약꽃으로 피어나게 했다. 서양에선 작약의 인기가 높아 19세기 인상파 화가인 마네·모네 등이 즐겨 그렸다. 빅토리아시대에는 사랑과 로맨스, 결혼을 상징했다. 장미가 구애할 때 사용했다면 작약은 구애에 성공했을 때, 즉 상대의 마음을 얻었을 때 전하는 꽃으로 인기를 누렸다.

영랑이 노래했듯 지금은 모란이 막 지고 작약이 꽃피는 시기다. 강진 모란공원에 가면 아직 모란꽃을 볼 수 있고 구례 쌍산재에선 만개한 작약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장필수 사회담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